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1호 [무게 제25750호] 주제 106 (2017)년 8월 29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당의 척후대, 익측부대의 위력을 떨치자

### 청년전위들의 결의대회 진행

【평양 8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같이 조 선혁명의 창로따라 폭풍쳐 나아가 는 긍지드높이 조선공산주의청년 동맹창립 90돐을 맞이한 온 나라 청년전위들은 위대한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최후승리의 돌고루를 앞장서서 열어나갈 혁명적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청년 전위들의 결의대회가 28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되 었다.

대회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청년중시 사상과 령도에 의하여 승승장구하 여 온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진흥을 맞이하며 백두산청 년대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 는 속에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창 립 90돐을 뜻깊게 맞이한 청년학 생들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끓어넘치고있었다.

금수산태양궁전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 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국가, 군데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라는 구호판들이 대회장에 세워져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북돋우십시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 따라 주체혁명위 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청년강국, 《건설우위》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 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 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 장인 최룡해동지와 김용남 청년동맹중앙위 원회 1비서, 청년동맹일군들, 청년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선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대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려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주악으로 대회는 시작되었다. 대회에서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창립 90돐을 경축하는 시 《태양을 받들어 청년대군 앞으로》가 낭송되었다.

경축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청년중시를 국사중의 국사로, 혁명의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고 현명하게 이끄시어 세상이 불도 없는 청년강국을 일떠세우시었으며 우리 청년들은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후배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명장들로 역사에 기뻐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독창적인 청년중시 사상과 정치를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어 주체혁명의 새시대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

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청년운동 사상과 령도업적을 되새겨보게 하는 경축 시는 참가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 었다.

이어 평양시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문철,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 김옥향,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강성일이 결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창립 90돐을 맞는 온 나라 전체 청년동맹일군 들과 청년들은 주체청년운동의 개척자이시 며 청년강국의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조선청년운동을 김일성, 김정일청년 운동으로 더욱 빛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넘쳐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조선청년운동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개척되고 강화발전되어온 주체의 청년 운동이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받들 는 조선청년들의 열화같은 애국충정이 수놓아는 자랑스러운 력사라고 강조하 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승장구 하여온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90년 력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온 나라 청 년전위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기 발을 높이 위남리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 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 해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고 그들은 말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동맹이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 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기 위하여서는 동맹조직력을 강화하고 그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넓여야 합니다.》

연설자들은 모든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 들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동맹전선과 활 동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확고히 틀어 쥐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어나가며 수령님들 의 유훈을 헌치의 드림도없이 철저히 관 체해나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유일적 령도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 시키며 동맹조직강화의 원마함을 일으켜

연설자들은 그 어떤 천지동파가 닥쳐와 도 일편단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감에 적극 이바지해나감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는 《김정성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 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창립 90돐을 맞 은 진행된 청년전위들의 결의대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500만 청년전위들 의 혁명분반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파시 하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세상이 불도 없 는 백두산청년대강국 의 위용을 높이 떨쳐 나가는 청년전위들의 역세 기상은 사회주의전야에서 도 세차게 나타내고있다. 지금 각지 농촌청년작업반, 청년분조원 들은 농촌청년분조운동발단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당 의 농업정책관철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파시 할 불같은 열정안고 남여남마다 는부심 헌신을 창조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청년들은 혁명투쟁의 전구들마다에서 청년들적대, 청년근위대, 청년작업반, 청년 분조운동들 과같이 전개하여 고 어디나 청년반으로 흥성이 도록 해야 합니다.》

각지 농촌청년작업반, 청년분 조원들이 과학농사방법을 일으 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거머쥘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힘있게 대답하는

### 당의 농업정책관철의 선봉대, 돌격대로

#### 각지 농촌청년작업반, 청년분조들에서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세상이 불도 없 는 백두산청년대강국 의 위용을 높이 떨쳐 나가는 청년전위들의 역세 기상은 사회주의전야에서 도 세차게 나타내고있다. 지금 각지 농촌청년작업반, 청년분조원 들은 농촌청년분조운동발단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당 의 농업정책관철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파시 할 불같은 열정안고 남여남마다 는부심 헌신을 창조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청년들은 혁명투쟁의 전구들마다에서 청년들적대, 청년근위대, 청년작업반, 청년 분조운동들 과같이 전개하여 고 어디나 청년반으로 흥성이 도록 해야 합니다.》

각지 농촌청년작업반, 청년분 조원들이 과학농사방법을 일으 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거머쥘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힘있게 대답하는

어느가본 계획보다 보름이나 앞 당겨 끝냈다. 뿐만아니라 집단주의 의 위력으로 지난 시기보다 모 내기를 앞당겨 견속하고 다수확 을 낼수 있는 돌고루를 열어나는 기세로 풀매기와 농작물비배관리 에서도 혁신을 창조해가고있다.

염주군 풍복현농동농장 청년분 조에서는 우렁이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전 개하고있다. 우렁이유기농법을 받아들이면 큰 곶을 틀이지 않고 도 지력을 높일수 있는것은 물론 이고 김매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을 실천을 통하여 확증 한 이곳 청년분조원들은 더욱 흥 인 크게 일편을 전개하고있다.

전국적 수많은 농촌청년작업 반, 청년분조원들이 따라앞서 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관운 동을 과감히 전개하며 당의 즉

산정책과 과수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청춘의 힘과 열 정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있다.

인원군 화산농장 청년분조원 들은 축산업발전의 4대고리목은 흔히 풀이되고 축산물생산에 서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있 다. 특히 이들은 관단배를 대 대적으로 채택이용하여 축산업 발전의 결정적담보인 내이문제 를 적지 않게 해결하고 사양관 리와 수의방역사업을 기술적요 구대로 진행하여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력성사과농장 청년작업반원 들은 한그루의 파인나무를 가꾸 어도 그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관철하는 성스러운 투쟁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과일대풍을 얻어내기 위하여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쏟아부 어고있다.

만고고지농장 청년작업반원들

이 농고지생산을 높 이기 위해 투쟁에 청 춘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이들은 계획보다 더 많은 유 기질비료를 내고 풀밭의 지역을 높인데 이어 쫓나무비관리를 잘하여 일꾼은 풍미를 생산하고 있다. 이곳 청년작업반원들은 이 이 농고지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과학관점의 불균형을 새차에 지쳐올리면서 더 많은 가을누에고치를 생산하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의 남과 남을 이어가 고있다. 특히 지난 3월 고금강하 구를 뚫어내고 이곳 청년작업반이 로 집단진출한 수십명의 청년들이 뽕나무관리지식과 누에지기로 리를 적극 배우고 전세대들의 투 쟁이야기도 들으면서 일리마다에 서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이들만이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농촌청년작업반, 청년분조원 들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만장약하고 당의 농업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 장에서 투쟁적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장은영

### 2년분계획수행단위들이 늘어난다

#### 광명성제염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이년해에 이룩한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5개년전략수행의 최고와 정점을 찍고 나만의 결 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 려세우자면 올해 전후목표를 기어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만리마선구사대를 승리사 의 대피로 밋내기 위한 총공 격전에 펼쳐나선 광명성제염소 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소금생 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총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 17일까지 전년 소금생산 계획을 104%로 넘쳐 수행한 제염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그 기세로 계속 돌격전을 벌려 성 과를 확대해가고있다. 지난 7월 15일에는 제염3직장 제1작업 반이 선봉으로 2년분 인민경제 계획을 수행하였다. 그뒤를 따라 7월 22일까지는 제염7직장 과 제염소안의 5개의 작업반이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 는 자랑스러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합정남도당위원회에서는 국 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서 관건적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해인 올해에 광명성제염소의 일 군들과 종업원들을 전례없는 혁신창조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제염소소금당위원회에서는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6월 중순 에 완수한 기세로 보다 높은 목 표를 제기하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에도 일군들과 대중을 불러 일으키는 혁신정치사업을 힘 씩있게 벌리고있다.

지배인 김용필동지는 2년분 소금생산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전투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맡기게 해나갔다.

제염소의 모든 일군들은 한개 작업반씩 맡고나가 따라앞서

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관 운동들을 힘있게 벌려 집단적경쟁 열풍을 일으키도록 대중을 이끌 어나갔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소금생산 의 돌고루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일군 들과 종업원들은 대중적기술혁 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여러가지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이고 소 금값이 큰불리해를 입지 않도록 배수양수장도 잘 꾸려놓았다.

제염 3직장 제1작업 반, 제2작업반, 제3작업반이 2년분 소금생산계획을 넘쳐 수 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뒤집새라 제염7직장 제3작업반, 제4작업반, 제5작업 반이 각각 2년분 소금생산계획 을 완수하였다. 작업원들의 생산 실적이 올라가는 추세에 제염7 직장이 7월 22일까지 2년분 소 금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특파기자 김 결 철

# 존엄높은 백두산청년강국의 주인공들, 우리 당에 끝없이 충직한 청년전위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김정은

## 청년강국의 위대한 력사 영원하리

청년문제, 이것은 오늘 인류에게 남아 갈수록 더욱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시대적 과제이다.

현시계 세계가 환경위기, 식량 및 에네르지위기, 물위기 같은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엄청난 위기보다 더 심각한 난문제라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진정한 세 세대가 준비되지 못하고있는것이라고 개탄하며 울부짖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력사에서 어떤 공적은 현실이 펼쳐지고있는가.

수많은 청년들이 온 나라가 떠받드는 미려미용의 선수가 되고 수나 청년들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마음 심심증의 발진소진실상과 사회주의 화염물, 수산건설과 새로운 개발자들이 달려가고있는 자랑스러운 현실...

세상을 둘러보면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청년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 조국에서처럼 명도자와 청년들사이에서 이렇듯 굳건한 혼연일체를 이룬 나라는 없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뚜렷한 특징이 있고 강대한 우리 조국의 백승의 힘에 대한 명명백백한 대답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충진군대로의 전배에 내세워 강성 국가의 문화를 남기지 않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청년강국! 수고한 이 부름을 다시금 외워들 수록 우리의 가슴은 새한 격정으로 뜨겁게 열매인다.

피어낸 인제부의 어떻게 시작된 자랑한 강국의 력사인가.

시 밀리 민족수난의 기슭에서 조선 혁명기 첫 빛을 울리던 그때 다음이던 이 나라의 청년들을 쫓아세우신분이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청년들에 대한 우리 수령님의 절대적인 그 믿음은 있었기에 청년 투사들은 간고한 항일투쟁의 원안과를 써서 조국해방의 력사적업무를 이룩할수 있었다.

혁명방전의 때 시기, 매 단계마다 청년들이 나아가길 길을 활리 활리 뛰고 조국건설에 자기의 이름을 뚜렷이 아로새기도록 걸출을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우리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도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 청년들은 새 조국건설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사회주의건설시기에 당의 빛나는 위훈을 아로새겨 조국의 승리적전투를 힘차게 떠밀어올수 있었다.

시련과 난관이 중중첩첩 막아왔던 고난의 시기 우리 청년들에게 혁명의 불꽃을 넘겨주고 최고사령관의 예리한투부대, 발동대, 당의 영원

한 동행자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위대한 기적과 승리를 이 땅우에 안아왔다. 이렇게 시작되고 수놓아진 청년들의 영광의 력사, 청년강국의 력사였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언덕에서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때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라는 뜻깊은 진철서한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은 온 나라 원만 청년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우리 선대와 인연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시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청년강국의 력사는 영원하다는 철의 신념을 더욱 굳게 새겨안았다.

주제 104 (2015)년 4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찾은 이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대지에서 영웅적인 투쟁을 하신것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미치 못할 단비를 얻은 심정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고양승되고 인민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청년강국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주제 101 (2012)년 8월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청년발전소 건설을 찾은 이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청년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위대한 기적과 승리를 이 땅우에 안아왔다. 이렇게 시작되고 수놓아진 청년들의 영광의 력사, 청년강국의 력사였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언덕에서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때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라는 뜻깊은 진철서한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은 온 나라 원만 청년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우리 선대와 인연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시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청년강국의 력사는 영원하다는 철의 신념을 더욱 굳게 새겨안았다.

주제 104 (2015)년 4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찾은 이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대지에서 영웅적인 투쟁을 하신것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미치 못할 단비를 얻은 심정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고양승되고 인민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청년강국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우리 당의 위대한 힘이며 영원한 전진력입니다.》

주제 9월 어느날 완공을 앞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찾은 이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은 온 나라 원만 청년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우리 선대와 인연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시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청년강국의 력사는 영원하다는 철의 신념을 더욱 굳게 새겨안았다.

주제 104 (2015)년 4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찾은 이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대지에서 영웅적인 투쟁을 하신것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미치 못할 단비를 얻은 심정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고양승되고 인민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청년강국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우리 당의 위대한 힘이며 영원한 전진력입니다.》

주제 9월 어느날 완공을 앞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찾은 이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은 온 나라 원만 청년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우리 선대와 인연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시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청년강국의 력사는 영원하다는 철의 신념을 더욱 굳게 새겨안았다.

주제 104 (2015)년 4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찾은 이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대지에서 영웅적인 투쟁을 하신것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미치 못할 단비를 얻은 심정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고양승되고 인민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청년강국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할 일념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이렇듯 훌륭한 청년들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었는가 하는 생각에 가슴부듯해짐을 금할수가 없다.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일지 못할 이야기가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진다.

그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찾은 이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대지에서 영웅적인 투쟁을 하신것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미치 못할 단비를 얻은 심정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고양승되고 인민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청년강국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주제 101 (2012)년 8월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청년발전소 건설을 찾은 이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대지에서 영웅적인 투쟁을 하신것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미치 못할 단비를 얻은 심정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고양승되고 인민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청년강국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의 심장의 격정을 담아 미치 못할 단비를 얻은 심정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고양승되고 인민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청년강국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주제 101 (2012)년 8월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청년발전소 건설을 찾은 이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대지에서 영웅적인 투쟁을 하신것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미치 못할 단비를 얻은 심정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고양승되고 인민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청년강국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주제 104 (2015)년 4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찾은 이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대지에서 영웅적인 투쟁을 하신것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미치 못할 단비를 얻은 심정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고양승되고 인민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청년강국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의 심장의 격정을 담아 미치 못할 단비를 얻은 심정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고양승되고 인민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청년강국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주제 101 (2012)년 8월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청년발전소 건설을 찾은 이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대지에서 영웅적인 투쟁을 하신것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미치 못할 단비를 얻은 심정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고양승되고 인민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청년강국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주제 104 (2015)년 4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찾은 이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대지에서 영웅적인 투쟁을 하신것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미치 못할 단비를 얻은 심정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고양승되고 인민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청년강국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의 심장의 격정을 담아 미치 못할 단비를 얻은 심정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고양승되고 인민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청년강국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주제 101 (2012)년 8월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청년발전소 건설을 찾은 이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대지에서 영웅적인 투쟁을 하신것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미치 못할 단비를 얻은 심정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고양승되고 인민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청년강국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주제 104 (2015)년 4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찾은 이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대지에서 영웅적인 투쟁을 하신것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미치 못할 단비를 얻은 심정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고양승되고 인민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청년강국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의 심장의 격정을 담아 미치 못할 단비를 얻은 심정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고양승되고 인민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청년강국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주제 101 (2012)년 8월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청년발전소 건설을 찾은 이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대지에서 영웅적인 투쟁을 하신것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미치 못할 단비를 얻은 심정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고양승되고 인민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청년강국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주제 104 (2015)년 4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찾은 이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대지에서 영웅적인 투쟁을 하신것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미치 못할 단비를 얻은 심정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고양승되고 인민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청년강국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의 심장의 격정을 담아 미치 못할 단비를 얻은 심정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고양승되고 인민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청년강국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주제 101 (2012)년 8월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청년발전소 건설을 찾은 이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대지에서 영웅적인 투쟁을 하신것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미치 못할 단비를 얻은 심정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고양승되고 인민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청년강국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주제 104 (2015)년 4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찾은 이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대지에서 영웅적인 투쟁을 하신것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미치 못할 단비를 얻은 심정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고양승되고 인민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청년강국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의 심장의 격정을 담아 미치 못할 단비를 얻은 심정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고양승되고 인민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청년강국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주제 101 (2012)년 8월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청년발전소 건설을 찾은 이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대지에서 영웅적인 투쟁을 하신것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미치 못할 단비를 얻은 심정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고양승되고 인민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청년강국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주제 104 (2015)년 4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찾은 이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대지에서 영웅적인 투쟁을 하신것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미치 못할 단비를 얻은 심정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고양승되고 인민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청년강국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청년강국의 위용떨쳐갈 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 단수대 언덕에서 - 본사기자 리종성 찍음

## 청춘들의 삶을 빛내주는 손길

### 첫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

주제 9월 어느날 완공을 앞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찾은 이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은 온 나라 원만 청년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우리 선대와 인연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시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청년강국의 력사는 영원하다는 철의 신념을 더욱 굳게 새겨안았다.

주제 104 (2015)년 4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찾은 이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대지에서 영웅적인 투쟁을 하신것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미치 못할 단비를 얻은 심정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고양승되고 인민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청년강국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 《해별》

주제 9월 어느날 완공을 앞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찾은 이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은 온 나라 원만 청년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우리 선대와 인연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시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청년강국의 력사는 영원하다는 철의 신념을 더욱 굳게 새겨안았다.

주제 104 (2015)년 4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찾은 이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대지에서 영웅적인 투쟁을 하신것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미치 못할 단비를 얻은 심정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고양승되고 인민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청년강국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 《처녀어머니》

주제 9월 어느날 완공을 앞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찾은 이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은 온 나라 원만 청년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우리 선대와 인연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시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청년강국의 력사는 영원하다는 철의 신념을 더욱 굳게 새겨안았다.

주제 104 (2015)년 4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찾은 이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대지에서 영웅적인 투쟁을 하신것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미치 못할 단비를 얻은 심정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고양승되고 인민의 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수백만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청년강국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였다.

## 백두산영웅청년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 우리 청년들이 혁명적품모

선인의 강자로, 주제혁명위업수행의 명장부대로 몇몇이 자랑평일수 있다.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갖고 시대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만마의 사자, 만리마선수가 되여 세상을 뒤흔들고있는 영웅청년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갈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이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살며 일하는 이 어디에서나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이 새겨져 내리고있다. 무슨 일을 하건 백두산정신에 자신들을 새겨넣고 백백의 힘을 가다듬으며 백두정충을 처럼 살의 순간순간을 백두같은 애국정성과 고상한 미증, 위훈장조로 꾸민이 되고있는것이 우리 청년들이다. 모든 청년들이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의 체현자가 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전진용돌전에서 조선청년의 솔거와 용맹을 남김없이 펼쳐나가자. 양방한 현실은 주제정신인용동의 다양한 전도를 확신하게 해주었다.

백두산영웅청년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 우리 청년들의 혁명적품모는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간직하고 당중앙을 한무숨마져 검사용위하는 데서 뚜렷이 과시되고있다. 수령님사용되는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세상에 우리 청년들처럼 혁명의 준엄한 내면보다 더 언제나 맑고 수백만을 굳게 믿고 파르르 검사용위의 영웅적투쟁사를 수놓아온 청년들은 없다. 주제정신인용동의 다양한 전도를 확신하게 해주었다.

백두산영웅청년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 우리 청년들의 혁명적품모는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간직하고 당중앙을 한무숨마져 검사용위하는 데서 뚜렷이 과시되고있다. 수령님사용되는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세상에 우리 청년들처럼 혁명의 준엄한 내면보다 더 언제나 맑고 수백만을 굳게 믿고 파르르 검사용위의 영웅적투쟁사를 수놓아온 청년들은 없다. 주제정신인용동의 다양한 전도를 확신하게 해주었다.

백두산영웅청년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 우리 청년들의 혁명적품모는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간직하고 당중앙을 한무숨마져 검사용위하는 데서 뚜렷이 과시되고있다. 수령님사용되는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세상에 우리 청년들처럼 혁명의 준엄한 내면보다 더 언제나 맑고 수백만을 굳게 믿고 파르르 검사용위의 영웅적투쟁사를 수놓아온 청년들은 없다. 주제정신인용동의 다양한 전도를 확신하게 해주었다.

백두산영웅청년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 우리 청년들의 혁명적품모는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간직하고 당중앙을 한무숨마져 검사용위하는 데서 뚜렷이 과시되고있다. 수령님사용되는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세상에 우리 청년들처럼 혁명의 준엄한 내면보다 더 언제나 맑고 수백만을 굳게 믿고 파르르 검사용위의 영웅적투쟁사를 수놓아온 청년들은 없다. 주제정신인용동의 다양한 전도를 확신하게 해주었다.

백두산영웅청년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 우리 청년들의 혁명적품모는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간직하고 당중앙을 한무숨마져 검사용위하는 데서 뚜렷이 과시되고있다. 수령님사용되는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세상에 우리 청년들처럼 혁명의 준엄한 내면보다 더 언제나 맑고 수백만을 굳게 믿고 파르르 검사용위의 영웅적투쟁사를 수놓아온 청년들은 없다. 주제정신인용동의 다양한 전도를 확신하게 해주었다.



# 《위대한 태양의 손길아래 걸어온 조선청년운동의 90년》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창립 90돐을 맞으며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대 《위대한 태양의 손길아래 걸어온 조선청년운동의 90년》이 28일 블라디보스톡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이며 조선인민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평양시 당위원회 위원장 김수길동지, 전광호내각부총리, 전을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김승두 교육위원회의 위원장, 함계부총, 청년동맹일꾼들, 청년학생들이 경축무대를 활약하였다.

시와 합창 《김정은장군께 영광을》로 시작된 경축무대에는 남성5중창과 합창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 《혁명가》, 이야기와 합창 《조선청년동맹의 노래》, 이은규합창과 실화무대 부부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실화와 합창 《우리는 혁명의 계승자》, 바인3중주와 합창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내》, 남성중창 《로동당을 잘 만나 칭송이 빛

청년학생들의 열광적인 열광을 받았다. 위대한 태양의 손길아래 걸어온 조선청년운동의 승리의 역사를 예술적화적으로 펼쳐 보여주는 경쾌하고 흥미로운 춤과 노래 《아버지과 부름》, 합창과 무용 《타오르라 우등불아》, 《당을 따라 चलन》이 앞으로는 장래를 뜨겁게 춤추었다. 위대한 수평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이어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 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인적봉모를 전하는 실화무대와 노래 《아버지과 부름》, 합창과 무용 《타오르라 우등불아》, 《당을 따라 चलन》이 앞으로는 장래를 뜨겁게 춤추었다.

위대한 수평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이어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 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인적봉모를 전하는 실화무대와 노래 《아버지과 부름》, 합창과 무용 《타오르라 우등불아》, 《당을 따라 चलन》이 앞으로는 장래를 뜨겁게 춤추었다.

위대한 수평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이어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 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인적봉모를 전하는 실화무대와 노래 《아버지과 부름》, 합창과 무용 《타오르라 우등불아》, 《당을 따라 चलन》이 앞으로는 장래를 뜨겁게 춤추었다.

위대한 수평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이어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 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인적봉모를 전하는 실화무대와 노래 《아버지과 부름》, 합창과 무용 《타오르라 우등불아》, 《당을 따라 चलन》이 앞으로는 장래를 뜨겁게 춤추었다.

위대한 수평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이어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 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인적봉모를 전하는 실화무대와 노래 《아버지과 부름》, 합창과 무용 《타오르라 우등불아》, 《당을 따라 चलन》이 앞으로는 장래를 뜨겁게 춤추었다.

위대한 수평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이어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 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인적봉모를 전하는 실화무대와 노래 《아버지과 부름》, 합창과 무용 《타오르라 우등불아》, 《당을 따라 चलन》이 앞으로는 장래를 뜨겁게 춤추었다.



##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창립 90돐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진행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창립 90돐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8일 저녁 8시 30분경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렸다. 무도회장은 위대한 태양의 손길아래 걸어온 조선청년운동의 승리의 역사를 예술적화적으로 펼쳐 보여주는 경쾌하고 흥미로운 춤과 노래 《아버지과 부름》, 합창과 무용 《타오르라 우등불아》, 《당을 따라 चलन》이 앞으로는 장래를 뜨겁게 춤추었다.

무도회장은 위대한 태양의 손길아래 걸어온 조선청년운동의 승리의 역사를 예술적화적으로 펼쳐 보여주는 경쾌하고 흥미로운 춤과 노래 《아버지과 부름》, 합창과 무용 《타오르라 우등불아》, 《당을 따라 चलन》이 앞으로는 장래를 뜨겁게 춤추었다.

무도회장은 위대한 태양의 손길아래 걸어온 조선청년운동의 승리의 역사를 예술적화적으로 펼쳐 보여주는 경쾌하고 흥미로운 춤과 노래 《아버지과 부름》, 합창과 무용 《타오르라 우등불아》, 《당을 따라 चलन》이 앞으로는 장래를 뜨겁게 춤추었다.

무도회장은 위대한 태양의 손길아래 걸어온 조선청년운동의 승리의 역사를 예술적화적으로 펼쳐 보여주는 경쾌하고 흥미로운 춤과 노래 《아버지과 부름》, 합창과 무용 《타오르라 우등불아》, 《당을 따라 चलन》이 앞으로는 장래를 뜨겁게 춤추었다.

무도회장은 위대한 태양의 손길아래 걸어온 조선청년운동의 승리의 역사를 예술적화적으로 펼쳐 보여주는 경쾌하고 흥미로운 춤과 노래 《아버지과 부름》, 합창과 무용 《타오르라 우등불아》, 《당을 따라 चलन》이 앞으로는 장래를 뜨겁게 춤추었다.

무도회장은 위대한 태양의 손길아래 걸어온 조선청년운동의 승리의 역사를 예술적화적으로 펼쳐 보여주는 경쾌하고 흥미로운 춤과 노래 《아버지과 부름》, 합창과 무용 《타오르라 우등불아》, 《당을 따라 चलन》이 앞으로는 장래를 뜨겁게 춤추었다.

무도회장은 위대한 태양의 손길아래 걸어온 조선청년운동의 승리의 역사를 예술적화적으로 펼쳐 보여주는 경쾌하고 흥미로운 춤과 노래 《아버지과 부름》, 합창과 무용 《타오르라 우등불아》, 《당을 따라 चलन》이 앞으로는 장래를 뜨겁게 춤추었다.



무도회장은 위대한 태양의 손길아래 걸어온 조선청년운동의 승리의 역사를 예술적화적으로 펼쳐 보여주는 경쾌하고 흥미로운 춤과 노래 《아버지과 부름》, 합창과 무용 《타오르라 우등불아》, 《당을 따라 चलन》이 앞으로는 장래를 뜨겁게 춤추었다.

무도회장은 위대한 태양의 손길아래 걸어온 조선청년운동의 승리의 역사를 예술적화적으로 펼쳐 보여주는 경쾌하고 흥미로운 춤과 노래 《아버지과 부름》, 합창과 무용 《타오르라 우등불아》, 《당을 따라 चलन》이 앞으로는 장래를 뜨겁게 춤추었다.

무도회장은 위대한 태양의 손길아래 걸어온 조선청년운동의 승리의 역사를 예술적화적으로 펼쳐 보여주는 경쾌하고 흥미로운 춤과 노래 《아버지과 부름》, 합창과 무용 《타오르라 우등불아》, 《당을 따라 चलन》이 앞으로는 장래를 뜨겁게 춤추었다.

무도회장은 위대한 태양의 손길아래 걸어온 조선청년운동의 승리의 역사를 예술적화적으로 펼쳐 보여주는 경쾌하고 흥미로운 춤과 노래 《아버지과 부름》, 합창과 무용 《타오르라 우등불아》, 《당을 따라 चलन》이 앞으로는 장래를 뜨겁게 춤추었다.

무도회장은 위대한 태양의 손길아래 걸어온 조선청년운동의 승리의 역사를 예술적화적으로 펼쳐 보여주는 경쾌하고 흥미로운 춤과 노래 《아버지과 부름》, 합창과 무용 《타오르라 우등불아》, 《당을 따라 चलन》이 앞으로는 장래를 뜨겁게 춤추었다.

## 우리 나라 재외대표부들에서 주권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 행위와 관련한 기자회견 진행

여러 나라 주재 우리 나라 재외대표부들에서 미국부대통령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외교관계단절을 강박한 것과 관련하여 20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에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러리는 미국의 극단한 자기중심과 오만성을 스스로 드러내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극도에 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것은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대한 반복적인 간섭이며 국제법과 국제질서에 대한 도발적인 도전으로서 규탄과 배격을 면치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러리는 미국의 극단한 자기중심과 오만성을 스스로 드러내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극도에 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것은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대한 반복적인 간섭이며 국제법과 국제질서에 대한 도발적인 도전으로서 규탄과 배격을 면치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러리는 미국의 극단한 자기중심과 오만성을 스스로 드러내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극도에 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것은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대한 반복적인 간섭이며 국제법과 국제질서에 대한 도발적인 도전으로서 규탄과 배격을 면치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러리는 미국의 극단한 자기중심과 오만성을 스스로 드러내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극도에 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것은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대한 반복적인 간섭이며 국제법과 국제질서에 대한 도발적인 도전으로서 규탄과 배격을 면치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러리는 미국의 극단한 자기중심과 오만성을 스스로 드러내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극도에 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것은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대한 반복적인 간섭이며 국제법과 국제질서에 대한 도발적인 도전으로서 규탄과 배격을 면치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러리는 미국의 극단한 자기중심과 오만성을 스스로 드러내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극도에 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것은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대한 반복적인 간섭이며 국제법과 국제질서에 대한 도발적인 도전으로서 규탄과 배격을 면치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 해불컴 남자 1급 축구결승경기 진행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28일 해불컴 남자 1급 축구결승경기가 5월 1일경에서 진행되었다. 결승경기는 평壤팀과 소백수업팀이 진행되었다.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28일 해불컴 남자 1급 축구결승경기가 5월 1일경에서 진행되었다. 결승경기는 평壤팀과 소백수업팀이 진행되었다.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28일 해불컴 남자 1급 축구결승경기가 5월 1일경에서 진행되었다. 결승경기는 평壤팀과 소백수업팀이 진행되었다.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28일 해불컴 남자 1급 축구결승경기가 5월 1일경에서 진행되었다. 결승경기는 평壤팀과 소백수업팀이 진행되었다.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28일 해불컴 남자 1급 축구결승경기가 5월 1일경에서 진행되었다. 결승경기는 평壤팀과 소백수업팀이 진행되었다.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28일 해불컴 남자 1급 축구결승경기가 5월 1일경에서 진행되었다. 결승경기는 평壤팀과 소백수업팀이 진행되었다.

뜻깊은 청년절을 맞으며 28일 해불컴 남자 1급 축구결승경기가 5월 1일경에서 진행되었다. 결승경기는 평壤팀과 소백수업팀이 진행되었다.

## 전국로동자농구경기대회 진행

전국로동자농구경기대회(전력공업부문)가 21일부터 28일까지 평壤에서 농구경기관과 평壤체육관에서 열렸다.

전국로동자농구경기대회(전력공업부문)가 21일부터 28일까지 평壤에서 농구경기관과 평壤체육관에서 열렸다.

전국로동자농구경기대회(전력공업부문)가 21일부터 28일까지 평壤에서 농구경기관과 평壤체육관에서 열렸다.

전국로동자농구경기대회(전력공업부문)가 21일부터 28일까지 평壤에서 농구경기관과 평壤체육관에서 열렸다.

전국로동자농구경기대회(전력공업부문)가 21일부터 28일까지 평壤에서 농구경기관과 평壤체육관에서 열렸다.

전국로동자농구경기대회(전력공업부문)가 21일부터 28일까지 평壤에서 농구경기관과 평壤체육관에서 열렸다.

전국로동자농구경기대회(전력공업부문)가 21일부터 28일까지 평壤에서 농구경기관과 평壤체육관에서 열렸다.



